

APSCC 창립과 새로운 아·태 협력체계, 초대회장 정선종 박사로부터 듣는다.

대담 : 이병섭/편집위원(항공대 교수)



◆ 먼저 「아시아·태평양 위성통신협의회」의 공식발족과 초대회장 취임을 늦게나마 정중히 축하 드립니다.

미래의 사회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점지하는 자의 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협업체 창설을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 큰 업적을 이룩하게 된 추진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십니까?

— APSCC의 창설제안의 동기는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통신 협력기구인 ITU가 증가하는

세계정보통신 관련 국가간의 협력과 현안 해결에 능력의 한계를 보여 지역협력기구의 탄생을 촉구하였고, 후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발전에 동반한 정보통신수요 폭발에 의한 수요공급간의 이해관계를 해결 해야할 상황이 되어 있고, 둘째는 동서냉전 종식 이후 우주기술의 상용화 추세에 따라 위성통신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성통신·방송 서비스 수요폭발에 의한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기구의 필요, 셋째는 우리나라의 국제 통신협력 확대노

EC의 통합,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UR 타결에 따른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전세계적인 지역주의화 및 국제화의 추세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 및 개별국가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동서 냉전체제의 해소에 따른 아·태지역 정치상황의 안정적 진전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성장, 폐쇄적인 이 지역 전통사회의 개방화 추세, 많은 인구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을 기존 지상통신망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성이 노출되었으며 위성통신서비스 수요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지역의 현안문제의 인식을 앞서서 터치함으로써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지혜임이 분명하다.

「아시아·태평양 위성통신협의회」설립을 제창하여 수년간의 숨은 노력의 결실로 이 단체의 창립을 지난해에 성사시킴으로서 통신외교의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고, 이 단체의 초대회장에 피선되어 설립 초기의 사업추진과 새로운 아·태지역 위성통신협력체계 구현을 구상하시는 위성통신외교의 숨은 실력자 정선종 박사를 만나 현안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아시아·태평양 시대에서 위성통신·우주산업 분야의 비전과 동향, 역내 각국의 입장 및 발전전망 그리고 무궁화 위성의 서비스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과 역내 위성통신협력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을 이끌어 보았다.

- 편집자 -

력에 부합하는 지역기구의 국내 유치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많은 국가와 인구, 대륙과 태평양 도서들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경제권 역으로서 정치적·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지니며 경제규모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역내의 조화로운 협력체계를 위한 초대회장으로서의 평소견해를 들려주십시오.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태지역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든 경제 소국이든간에 앞으로의 국가발전은 세계화, 개방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태지역이 위성통신방송의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APSCC 참여 의지는 강하며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이 위성산업을 주도하면서도 APSCC를 주도하지 못한 것을 초기에 섭섭히 생각한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협조를 잘합니다.

◆APSCC의 출현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고도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경위, 설립의 의의, 목적사업 등을 소개함으로써 차별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APSCC는 1992년 11월 UN이 서울에서 “92 UN Workshop on Space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를 개최하면서 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UN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워크샵을 개최 하였고, 저는 이를 조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태지역의 위성통신방송 호황상태와 궤도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다툼을 관찰하고 있던 저는 워크샵에서 APSCC 창설을 제안 하였고 열렬한 지지를 받아 총회에서 APSCC를 창설하자고 UN과 아·태지역 각국정부에 건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APSCC는 아·태지역에 위성통신방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기술교류, 전문가 교육, 궤도조정 of 중계, 기술기준안의 마련등을 통하여 지역국가간의 협력을 유도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APSCC의 설립은 아·태위성통신발전에 의의가 큰일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독점하

던 국제 통신협력 주도위치에 서게된 것입니다.

◆ APSCC의 기구조직과 인적구조, 초기 중점추진사업들에 대하여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PSCC는 전문가 단체로서 회원 전체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총회가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지며,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맡습니다. 이사는 회원중 아·태지역 국가를 대표하는 회원과 지역 위성서비스 회사가 됩니다.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주체하며 APSCC를 대표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이사에서 7명을 선임하여 각전문 분야별로 상임이사로 회장이 임명 합니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관장하며 이사회 의결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합니다.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APSCC는 우선 아·태지역 위성통신 관련 회사 기관들의 회원 가입을 촉구할 것이며 95년 말까지 100개 기관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지 발간을 통해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지역내 관련 종사자들에게 특정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ITU 지역기구 회원으로서 ITU가 위탁하는 현안에 대한 지역 의 견수렴 업무를 많이 수행할 것입니다.

◆ 사무국의 조직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 APSCC의 예산은 사무국 운용예산과 과제수행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소요예산은 50% 이상을 APSCC 사무국 유치이사인 한국통신이 부담케 되어 있고 나머지를 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APSCC가 지향하여야할 사업과 정책방향이 민간단체로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구상하시는 이 단체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내에 존재하는 APT나 PTC는 통신의 전반적인 분야를 관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APT는 관료화, PTC는 상업화 되어 있습니다. APSCC는 위성통신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앞으로 특성화된 지역 협력기구가 될 것입니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전망과 역내 국가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회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지요.

그리고 역내 각국은 어떤 입장에서 있으며, 수행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우주기술의 상용화는 통신, 방송 서비스에 위성을 사용하는 것을 주로 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상 유선 통신·방송망과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방송은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지난 8월 5일에는 무궁화호 위성이 지구정지궤도 상에 쏘아 올려짐으로서 우리나라도 선진통신위성 보유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호 위성의 사업추진에 직접 참여하신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한 무궁화 위성사업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무궁화 위성사업은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 위성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 사업영역에 법제도가 정착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모든일의 시작은 모험과 불확실성을 헤치고 이루어 집니다.

위성에 의한 통신과 방송서비스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정치궤도상에서 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여 지역 국가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역위성 서비스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전망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장님의 견해와 충언을 듣고 싶습니다.

- 위성통신 전파의 광역성 때문에 국내위성보다는 지역위성이 경제성이 크고 세계위성이 더 큽니다. 우리 기업들의 능력이 있다면 하루속히 지역위성 사업에 진출토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위성들이 외국상공에서 인접국 뿐 아니라 우리 뒷마당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개인적인 History와 좌우명을 소

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진들을 위한 충고와 훈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미국에서 참여하고 있던 우주왕복선 계획이 체 끝나기도 전에 국내위성사업을 위해 귀국한후 무궁화 위성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이 되었는데, 올해 드디어 무궁화 위성을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사업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과를 당대에 기대하면 무리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시스템은 신뢰성을 중시하므로 팀웍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주기술은 발사시 불꽃놀이처럼 흥분과 기대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관중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주기술자는 침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